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2013. 4. 19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개요	1
II. 계획 수립의 의미	2
III. MB정부 추진실적 및 평가	3
IV. 2013년 해외건설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7
V. 2013년 해외건설 중점 추진과제	13
붙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24

I.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개요

□ 법적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성격

-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계획기간 : 2013년 1個年

□ 추진경과

- 2012. 12월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수립착수

- 2013. 1~3월 기초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 의견 설문조사('13.1, 해건협)

- 2013. 4월초 관계부처 협의 및 보완

- 2013. 4월말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 수립·확정

II. 계획 수립의 의미

- '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정부지원 등의 시너지 효과로 해외건설 수주가 상승 추세를 보임
 - * 수주액(억불) : ('07) 398 → ('08) 476 → ('09) 491 → ('10) 716 → ('11) 591 → ('12) 649
- 해외건설시장 점유율(ENR, 매출기준)도 '03년 12위(3.9%)에서 '11년 7위(5.7%)로 대폭 향상
 - * ('07) 13위(2.6%) → ('08) 13위(2.9%) → ('09) 9위(4.3%) → ('10) 7위(4.8%) → ('11) 7위(5.7%)
 - * 순위('11년) : 중국 > 스페인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한국 順
- 해외건설은 반도체·자동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거듭났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큰 효자산업임
 -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수출주력 상품인 석유제품(562억\$), 반도체(504억\$), 자동차(472억\$), 선박(397억\$) 수출액을 능가
 - * 100억불 매출당 해외현장 6천명, 국내 연관산업 3만명 등 총 36천명 고용 창출
- 향후 해외건설 시장은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들의 인프라·주택건설 등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기업들의 진출기회는 지속될 전망
 - * 해외건설시장 규모(Global Insight, 매출액, 백억불): 80('12) → 86('13) → 94('14)
- 다만, 현재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지역·공종 편중,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도급사업 위주 수주 등 취약점 존재
 -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건설 선진국들은 엔지니어링 및 핵심자재 공급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진출중
 - 아울러, 최근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차관 등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으로 대응 필요

⇒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수립을 통해 해외건설 5대강국(연 천억불 수주) 조기진입 기반마련 필요

III. MB정부 해외건설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08~12)

□ 제 2중동붐* 등 해외건설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 추진

* 고유가에 기반한 플랜트 건설, 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 2022 월드컵 특수(카타르) 등 영향으로 다수 프로젝트 발주

○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 VIP: UAE 원전('10.1), 태국 물관리 사업('12.11) 등/ 국토부 장·차관 : 23회

○ 비상경제대책회의(VIP 주재)* 등 고위급 회의체를 통해 인력,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해외건설 지원방안 마련·추진

* (인력) '해외건설 인력 확충방안'('12.2), (금융) '제2중동붐에 대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12.3) 등

□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조성('10.7, 4천억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현재까지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400억원('11.7), 포르투갈 태양광발전사업 400억원('12.5) 투자 완료

□ 해외건설진흥계획('10~'14년)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현지 네트워크 신설 및 국토부 지원조직 강화

* 해외건설협회 지부 설치('10~, 현재 7개국)/ 해외건설정책·지원과 확대개편('12.3)

⇒ 최근 5년간 '65년 첫 해외진출 이후 누적수주액의 52% 수준인 2,834억불을 수주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규모 급격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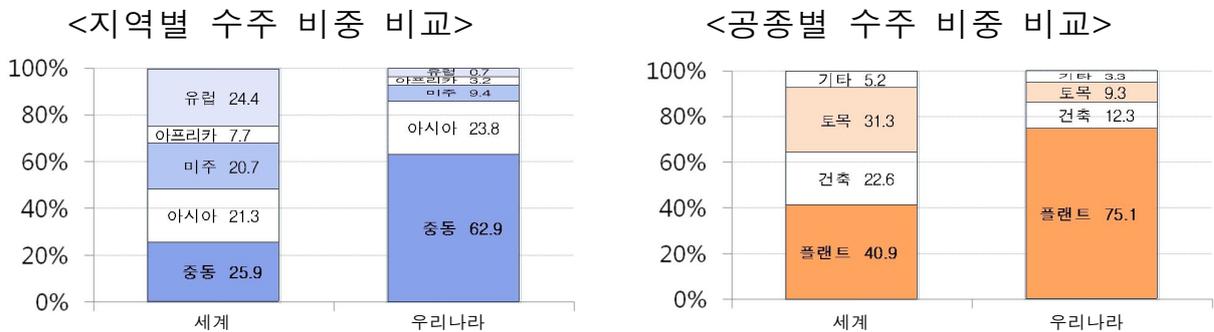
* UAE원전(186억불, '10.1), 이라크 신도시(77억불, '12.5) 등 초대형 사업 수주
* '12.6월 해외건설 누적수주 5천억불 달성(VIP 주재 기념행사 실시)

2. 평가

◆ 수주규모 확대는 긍정적이거나, 수주편중, 낮은 부가가치 등 구조적 문제는 지속되어 수주의 지속 확대 및 질적 내실화 필요

1 수주구조 편중 및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 지역별·공종별 편중에 따라 유가 등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중소기업 비중이 '07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07. 16.8 → '12. 5.2%)
 - * 중동 66%('10) → 50%('11) → 57%('12), 플랜트 80%('10) → 73%('11) → 61%('12)
- 중동·아시아 등에서 우리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 등 발생
 - * 경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 및 분야 다변화 필요



※ '세계'는 ENR, '우리나라'는 해건협 통계 기준(최근 3년간, '09~'11)

2 낮은 부가가치 및 MDB 조달시장 진출 미흡

- 기본설계 등 핵심분야 외부 의존, 단순도급사업 위주 수주로 수익성이 낮고, 인력·자재 등도 외국에 의존하여 외화가득률이 20% 내외
- 다자개발은행(MDB) 분담금 납부 등 기여에 비해, 국제기구 추진 원조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
 - * '10.6월 기준, 한국은 WB 출자국(1.7%)이지만 수주는 발주량의 0.1%에 불과

3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흡

- ODA, 금융지원, 수주지원단 파견 등 해외건설 정책수단이 분절화 되어 기업지원 및 국가이익 차원의 유기적 추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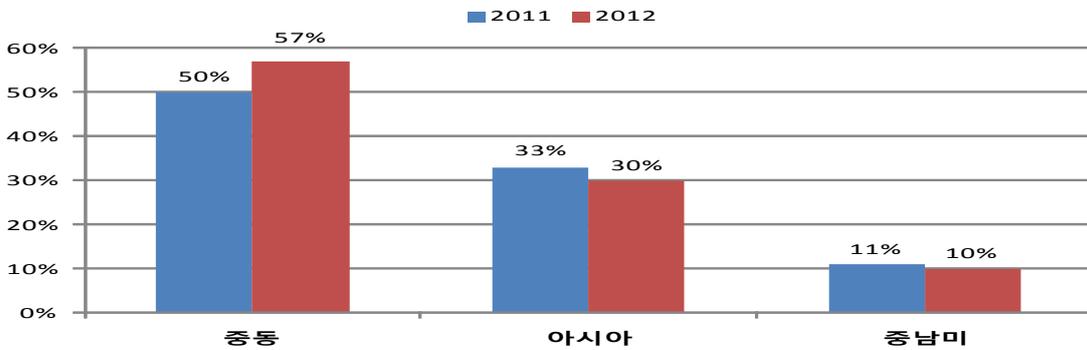
- (수주금액) '12년에 649억불을 수주하여 목표인 700억불에는 미달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주확대 기조 유지

< 해외건설 수주 추이(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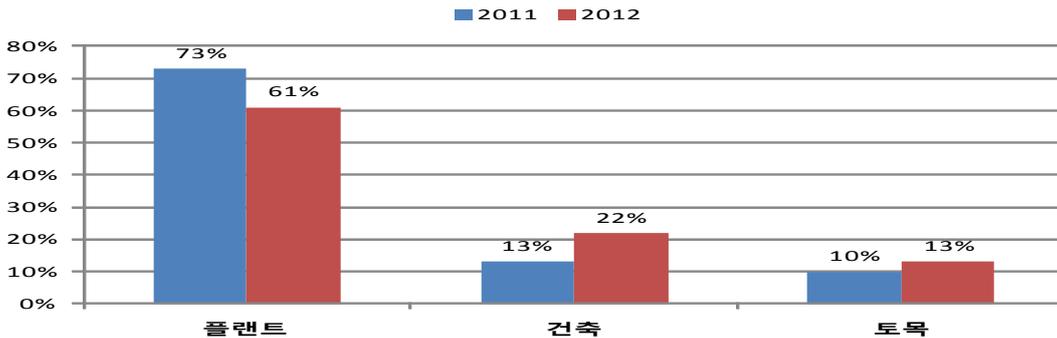
- (수주구조) 글로벌업체 평균(ENR 중동 24%, 플랜트 40%) 대비 중동·플랜트에 편중되어 있으나, 공종은 전년보다 다변화

○ 지역별(억불): 중동 369(57%), 아시아 194(30%), 중남미 62(10%) 등



○ 공종별(억불): 플랜트 395(61%), 건축 143(22%), 토목 88(14%) 등

* 쿠웨이트 수비아 해상대교(20.6억불), 이라크 신도시(77.5억불) 등 수주로 건축·토목 비중증가



○ 기타(억불) : 중소기업 33.9(5.2%), Eng 8.2(1.3%), 투자개발형 3.8(0.6%)

추진분야	중점추진과제
1. 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1-1. 플랜트 건설 수주경쟁력 강화 1-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활성화 1-3.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참여 활성화
2. 해외건설 지원체제 강화	2-1. 해외건설 정보 네트워크 강화 2-2. 해외건설 정책개발 기능 강화 2-3. 해외공사 금융 지원 강화 2-4. 해외건설 진출 인센티브 강화
3. 해외건설 관리체계의 선진화	3-1.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조정체계 확립 3-2. 해외건설 인력확보 지원 3-3. 해외건설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4. 해외건설 수주기반 확대	4-1.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지원 확대 4-2. 해외건설 지원외교 확대 4-3. 중소기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5. 해외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5-1.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5-2. 녹색성장 부문 진출 활성화 5-3.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5-4. 해외 CM시장 진출기반 확대

IV. 2013년 해외건설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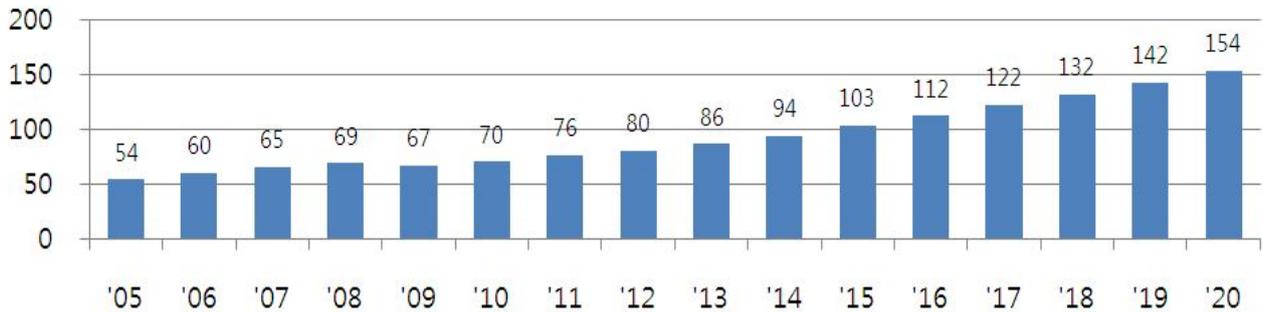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13년 해외건설시장은 '12년(8천억불) 대비 **7.4%** 성장한 약 **86백억 불**로 추정되며 급격한 침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 개방된 세계건설시장(Global Insight, 매출액, 백억불): 80('12)→86('13)→94('14)

< 해외건설시장 규모 전망(백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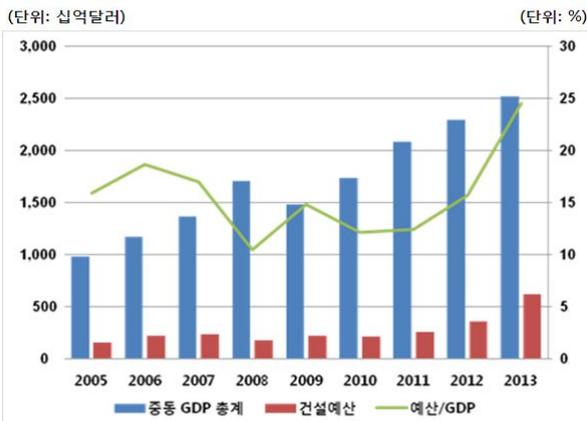


- 유가폭락 가능성은 크지 않아, 중동지역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프라 발주*가 지속될 것이며, 전후 복구사업도 가시화** 예상

* (사우디) '10~'14 경제개발계획 4천억불, (UAE) 아부다비 2030계획 2천억불, (쿠웨이트) '10~'14 개발계획 1천억불, (카타르) '22년 월드컵 경기장·호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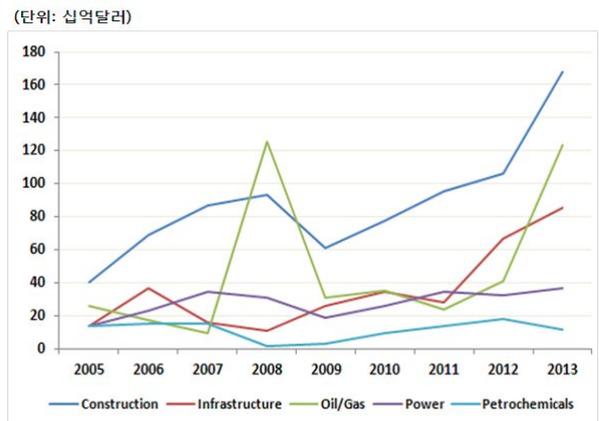
** (이라크) '10~'15 국가개발계획 2천억불, (리비아) 1.2천억불(3/4분기 본격화 예상)

MENA 지역 GDP 대비 건설예산 추이



주) 중동국가는 MEED Project에 포함된 국가로 한정

2013년 MENA 건설시장 공종별 예산 추이



주) 공종별 예산은 2012년 9월 기준 프로젝트 규모의 함

- 아시아는 동남아권 외에 중앙아·서남아 지역 발주확대가 기대

* (싱가폴) '20까지 물류·석유화학 440억불, (태국) 물·고속철 360억불, (카자흐) '11~'15 교통·석유·가스 270억불, (아제르) '13 석유화학 170억불, (인도) '12~'17 인프라 1조불

-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발주 증가세도 지속 예상

* (나이지리아) '10~'20 전력 1천억불, (모잠비크) 신규가스전 발견→500억불 투자요

** (브라질) '16 올림픽 인프라 1.3천억불, (페루) '11~'20 광업·가스·에너지 732억불

○ 일본·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건설수주 지원 중

- 일본은 1건별 수주경쟁이 아니라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단계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엔차관 등 장기자금을 전략적으로 병행 제공

* 인도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델리·뭄바이간 산업대동맥」 구상에 따라 일본이 물처리·발전소 건설 등 19개사업(1.2조엔) 실시 합의('12.11)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개발계획(「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구상)을 양국 공동 수립 → '20년까지 철도·도로·항만·발전소 건설 등 45건의 사업(총사업비 3.4조엔)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이 1조엔 차관 제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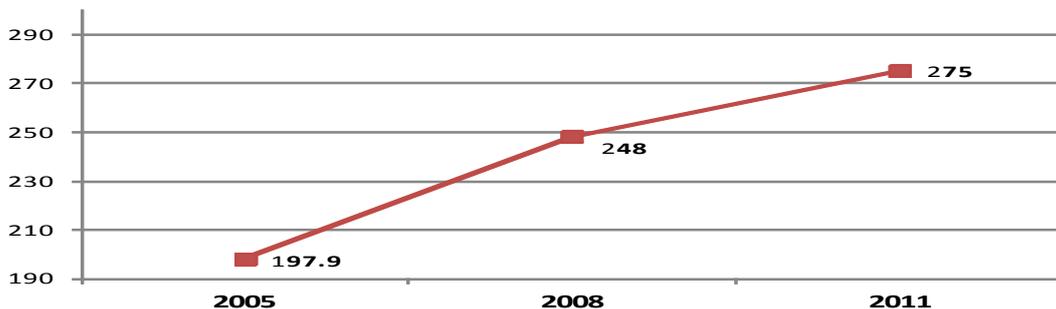
- 중국은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에 차관 제공, 직접투자 등을 집중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아프리카 지역내 세계1위, ENR)

* 중-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시('12.7) 인프라·농업·중소기업부문에 200억불 차관제공 의사표명, '11년도에 아프리카 50개국에 150억불 직접투자

○ ODA(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따라 **MDB 조달시장**은 '05년 197.9억달러 → '08년 248억달러 → '11년 275억달러로 규모가 지속 확대중

* WB, ADB, IDB, AfDB, EBRD의 조달시장 규모 합계(기재부)

MDB조달시장 규모(억달러)



② 대내여건

- 국내 건설시장은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업계 지속성장과 활로모색을 위해 해외건설 진출 확대 필요

* 국내수주액은 '07년 112조를 정점으로 하락중이나, 해외수주액은 지속 확대되어 향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국내 수준을 상회할 전망('15년 전후)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국내건설수주액(조원)	91	112	103	109	90	93	87
해외건설수주액(조원, 1\$=1,100원)	18	43	52	54	78	65	71

- 기업들도 해외건설 진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조달, 인력 확보, 기술력 향상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

- 금융조달이 수반된 해외건설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보증·대출 등 금융조달 어려움으로 수주에 실패하기도 함

* 해외건설 금융은 주로 무역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지원중이나, 기업의 재무여건 위주 심사로 확대에 한계

* 해외건설 분야 대출·보증 비중('11) : (수은) 23.3%, (무보) 4.9%

-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도 업체들의 기술력 및 **Track-Record*** 부족, 금융지원 등 어려움으로 해외진출 확대에 애로

* 주요 발주처들은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요구

<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의 해외건설 경쟁력 비교 >



- 단기 직무교육 위주로 인력양성이 이루어져 해외건설 핵심인력 (Key man)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권 교육 등 체계적 기반 미약

2. 정책추진 방향

비전

5년내 해외건설 세계 5대강국 진입(2011년 7위)

* 시장점유율 9%, 연간 1천억불 수주 목표

정책목표 및 주요 과제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 정부주도의 개발협력을 통한 한국형 인프라수요 창출
- MDB·국제기구 등 외부자금 활용
- 한국 해외건설 브랜드화

중소기업 진출확대

-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및 수주 컨설팅 확대
- 인력난 해소 및 인지도 제고 지원
-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해외건설 하도급질서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화

-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 해외건설 맞춤형 R&D 추진
- 건설 Eng 해외진출 확대 및 우리 인력·자재 활용 제고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 수주지원단 파견 등 외교력 집중
- 신도시·물산업 등 강점분야 진출 활성화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 → 기업이 하기 어려운 MDB 등 네트워킹, 개발협력을 통한 인프라수요 창출, 중소기업 지원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가용자원 연계·시스템화 등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주 추진(‘12.6)**

-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전개 촉진 프로그램’** 마련·추진

* (배경) 인프라 관련 제품 및 요소기술은 세계 톱 수준이나, 종합적 수주능력·지원체제·가격경쟁력 등이 부족

- 1건별 수주경쟁이 아니라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단계에서 관여** 하고, **엔차관** 등 장기자금을 전략적으로 **병행** 제공하는 데 특징

< 프로그램 주요 분야 : 6개 >

- 광역개발 프로젝트 상위단계에서의 관여, 인프라사업 발굴·형성력 강화, 수주체제 및 플레이어 경쟁력 강화, 가격경쟁력 및 타국과 차별성강화 등 수주지원,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 활용 강화, 공적 파이낸스 지원 강화

☞ (인니) 자카르타 도시개발계획 수립 MOU(‘12.6월) + 1조엔 차관 제공 추진 (인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일본과 공유(‘12.10월) + 신칸센 도입 방침(‘12.11월)

□ **「향후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 수립(‘13.2, 국토교통성)**

- (기본구상) **신흥국 인프라 수출로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 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 이미지 구축

- (진출방식) 상대국 풍토와 문화 존중하되, 자국 기업 이익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현지화 솔루션*** 마련

* 글로벌 로컬 인재 확보 육성, 공공기관에 축적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산학관 연계 및 역할분담 강조

- (추진방향) **“상류(기획·구상)”부터 “하류(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수주 능력을 배양** 하고, 외교 및 금융능력 제고

* 일본은 지금까지 조사, 설계, 조달, 시공 등 “중류” 위주의 실적을 쌓아왔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류/하류” 분야 경험은 부족하다고 자평

< 6대 전략 > ①상대국 니즈 파악, ②인력양성, ③종합수주능력을 갖춘 사업자 확보, ④경쟁국 따라잡기, ⑤신분야 개척**, ⑥국내시장 국제화

** (신분야 개척)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진 **소프트 인프라(제도, 기술, 기준, 운용 노하우)** 및 **방재패키지(예: 태국물관리)** 해외진출 적극 도모

□ 설문조사 개요

- (목적)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건설업자 의견조사
- (기간·대상) '13.1.21~1.28일, 총 43개사* 48명 응답
 - * 대기업 16개, 중견기업 7개, 중소기업 19개, 기타 1개 업체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해외진출 이유) 국내시장이 포화상태(82%), 기술력 등 향상(15%)
- (전년대비 목표) 전반적으로 20%내외 증가 수준으로 공격적 설정
 - * 20%이하(23%), 30%이하(21%), 50%이상(21%), 5%이하(14%)
 - * 단, 일부 대기업은 수주목표 하향 안정으로 보수적 책정(수익률 우선)
- (진출지역) 현재 동남아(32%), 중동(31%) 위주이며, 향후 동남아(29%), 중동(22%)과 함께 아프리카(18%), 중앙아(14%), 중남미(14%) 등 신시장으로 진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
- (해외진출 애로사항) 인력확보, 사업타당성조사, 물가·환율 불안정, 해외실적 등 인지도 부족, 금융지원 부족, 현지업체 능력부족 순
- (정책인지도)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해건협 지부, 수주지원단 파견,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 일부 정책은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은 상황
- (정부지원 건의분야) 시장개척자금 확대, 과당경쟁 해소, 중소기업 금융지원, 발주정보 및 진출국 정보제공, 컨트롤타워 역할 순
- (자체 개선필요사항) 금융조달능력(26%), 정보수집·분석력(19%), 사업기획력(17%), 프로젝트 관리능력(13%), 협상·계약능력(12%) 순
 - * (건의) 정보입수, 주요인사 네트워킹, 중소기업 참여 확대, 개발단계부터 연계 등

V. 2013년 해외건설 중점 추진과제

1.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① 정부주도의 개발협력을 통한 한국형 인프라 해외 수요 창출

- 개도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 후, 금융을 연계 제공하여 수주와 연결하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 추진
 - 신도시·수자원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고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가 큰 분야를 대상
 -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13년 31억원)을 활용하고,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GIF·EDCF 등 금융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13)
 - * 분야·대상국 선정(6월)→ 대상국 협의 및 MOU 체결(9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11월)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인프라 개발 성과·노하우 소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저변 확대 지원
 - * 인프라 관련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1주일) 및 KOICA 등 초청연수 사업 시 우리나라 인프라 개발경험 강의
 - * 월드뱅크(WB)와도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추진('13.10월 예정)
- 국토·교통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기업 해외 진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개발협력 협의회」 활성화
 - * 국토부 및 유관기관(16개) 협의체('13.1월 구성)로 인프라분야 해외진출 정보·노하우 공유, 개발협력을 활용한 해외진출 방안 연구, 개발협력사업 발굴 등

② MDB·국제기구 등 외부자금 활용

- MDB와 해외 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공동 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 공동개최('13.11)

-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와 '13년중 체결 추진
- ** 정보교류 및 민간기업 네트워킹 지원 등 목적/ 제1회 협력포럼 기개최('12.11)

○ 카타르홀딩스, **Invest AD** 등 중동국부펀드와 공동 투자 사업 발굴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 * (국부펀드와 MOU) UAE Invest AD('12.5), 카타르투자청('12.10)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UAE('13.2), 카타르('13.3) → '13년중 상·하반기 각 1회씩(6월, 11월) 공동투자사업 발굴 협의

-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사우디 등 타 국부펀드로 협력 확대 추진

○ **MDB**(다자개발은행), **GCF**(녹색기후기금) 등에 인프라 전문인력을 파견, 공동사업 기획 등을 통해 수주확대는 물론 MDB 자금 활용

- * ADB 등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13)

③ 한국 해외건설 브랜드화

○ 한국 해외건설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또는 슬로건)를 론칭하여 세계 7대 강국에 부합하는 체계적 홍보 추진

- * 한국산 공산품(Made in Korea) 또는 K-Pop·한류(韓流)에 비견되는 '한국 건설 프리미엄(Built by Korea)'을 조성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규 **브랜드**(또는 슬로건) 공모를 추진하여 한국 해외건설의 세계적 위상과 성과에 대한 인식도 제고('13.下)

○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브랜드 공식계정을 개설하여 한류 콘텐츠 등과 연계한 **사진·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지속 노출

- * 정부·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홍보내용 단계적 확대
- * 한류, K-pop과 연계하고 홍보대상(외국 국민/발주처)에 따라 구분·제작

○ 주요 발주처 인사, 외국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종합적·체계적 브랜드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上)

-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컨설팅」 사업도 활용('13.3~4월)

2.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①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성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증심사 **System** 구축
 - 해건협에 사업성평가실을 신설('13.2)하여 평가기법 연구 등 지원
 - * 「해외건설공사 사업성평가분석 강화방안 연구용역('12.9~'13.4)」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모델 구축 및 활성화 추진
 - * 평가기법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심사시 활용
- 건설공제조합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조합내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축('13.下)
 - * 보증규모(억원): ('11년) 678 → ('12년) 1,100 → ('13년, 목표) 2,000
 - * 상품개발, 해외보증영업, 해외보증심사, 보증수수료 등을 전담
- 공제조합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정부 추천서**를 발급하고, **보증 전문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밀착 금융서비스 제공(UAE 1인, '13.4월)
- 수출입금융기관(무보·수은) 이행성보증 심사시 해건협의 사업성평가 반영을 강화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강화방안 추진

② 중소기업수주지원 컨설팅 확대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해건협)내에 전문가가 상주(1인)하는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자문위원*과 연계하여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법률·F/S·회계·플랜트·CM·건축·리스크·금융·보험·IT·ISO 등 11개분야 39명
- 해외건설 자문위원을 **50인**(현 39인)으로 **확충**하고 상담분야(계약·클레임, 금융, 리스크, 기술)별로 **팀을 편성, 자문 제공**

③ 인력난 해소 지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규모 확대('12년 3천 → '13년 3.5천명*)
 - * 취업과정 2,740명, 재직자 과정 320명, 특성화 대학 400명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해외현장에 보낼 경우 1년간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OJT사업 확대**('12년 217명 → '13년 400명)
 - * 1인당 1,140만원 지원 : 훈련비 960만원(80만원×12월) + 파견비 180만원
- 장기적·안정적 해외건설 기능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도입 추진**
 - * 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13년 마이스터고 신청을 위해 지원사항 협의 완료
 - * 우리부 지원사항 : 관련단체와 MOU 체결·교과과정 개발·자문단 지원 등

④ 중소기업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 지원

- 중소기업의 주력업종인 **설계, 감리, PMC** 영역에 있어 공공기관·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시장내 인지도 제고 지원
 - *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시 공공기관·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전매칭 추진
 - * 매년초 공공기관 해외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하여 동반진출 기회 부여
- 공사실적, 재무 건전성, 신시장개척 실적 등을 고려,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해촉법 제16조)하여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추진
 - *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해외건설 로드쇼 및 GPP 행사 초청, 필요시 정부 추천서 발급 등
- **기술개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타 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 강구**
 - * 브랜드 사용 허용, R&D 성과 연계, 국내 주요 금융/보증기관에 대출·보증 우대, 시장개척자금 우선 지원, 병역특례 및 OJT 사업선정 가점 부여 등
 - ** 산업부(KOTRA), 중기청, 외교부, 고용부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우수 해외건설업자 우선배려 협조요청

⑤ 리스크관리시스템 개선

-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단계별 리스크 관리,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선(해건협)하여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 프로젝트 선별 및 사업단계에서 관련되는 리스크를 분석·제공

- 현 시스템은 '93~'03년 데이터로 '05년에 구축되어 업데이트·개선 필요
- 재정지원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기업에 무료 제공중 →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

- 환율변동 및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추가하고, 공종별로 특성화된 리스크 관리체계 개발 추진

* 개선방안 마련후 관계부처 예산협의 추진

⑥ 해외건설 하도급질서 개선

- 국내기업이 원청인 해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일부 계약에서 불공정계약이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강화 추진

* 최근 3년간('10~'12) 중소기업 수주의 58% 차지

** 매월 발생 기성금의 2개월후 지급, 매달 기성유보금 10%이상 발생 등

- 법령 개정 등 하도급 해외건설업자 보호방안 마련(공정위 협조)

3. 고부가가치 산업화

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 조성·운영중인 글로벌 인프라펀드(4천억) 사업발굴 및 투자 지속 확대

- 수자원, 공항, 도시 등 우리기업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Special Fund** 조성 추진

* Air펀드 조성 추진('13.6), Water펀드 조성 추진('13.하)

- 신규건설 프로젝트(Green Field Project) 외에 기존 시설물의 시설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SPC(Brown Field Project)에 대한 투자도 허용

- 글로벌인프라펀드와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투자사업 정보 교류 활성화 및 투자 연계 강화

*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F/S사업 결과 공유 등

○ 해촉법에 “해외개발사업투자펀드” 설립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타 산업정책 펀드(해외자원, 해외농업 등)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자금으로 펀드조성을 유도('13년중)

* 보유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및 직접대출 허용, 운용인력 완화, 세제지원 등

** 금융종합과세 과세기준이 강화로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매우 높음

○ 투자개발형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확대('12년 12억 → '13년 21억원)

-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조사로 구분*하고, 선정기준을 세분화** 하여 유망 투자사업 발굴 능력 제고

* (예비타당성) 리스크, 수익성, 사업구조 등 초기 사업개발 가능성 검토

(본타당성) 예타 결과를 토대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법률, 재무사항 등 검토

** (예타) 사업주의 내부역량평가 강화, (본타)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② 해외건설 맞춤형 R&D 추진

○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에 특화된 맞춤형 R&D 추진('15~'24년)

* 해외건설 R&D에 대한 기획연구 완료('13.5), '13.下 R&D 예타 신청 예정

* 중점연구분야 : 시장맞춤형 기술연구, 시스템·Eng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 현재 진행 중인 R&D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실용화 연구 포함

- 사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계약·클레임 관리 등 법제, 금융조달 기법, 해외인력 노무관리 등 Soft 기술 분야 연구 확대

* 프로젝트 컨설팅·관리, 설계·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육체계도 구축

- 해외 권역별 시장·정책·기술동향 등을 상시 분석하는 해외진출 지원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선진국 기술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③ 건설 Eng 해외진출 확대

- 건설ENG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 등 세부 업역 통합, 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통합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 추진*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2.12.27)

- **FEED, PMC**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배양

*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프로젝트 종합관리

** 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 개념·기본설계

- 국내 ENG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진출전략 수립, 정보 제공

* 해외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법제도 개선에도 활용

** 중소 Eng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기술정보 DB 및 기술정보 공유망 구축, 계약방법·절차 및 현지 정보 등 제공 추진(현재 시스템 시범 운영 중)

- **EU·아시아** 등 주요국과 정부간 '건설기술협력회의'를 운영하여 정책·기술 교류 및 민간의 사업참여 지원

- **CM**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유망국가별(캄보디아 등) 적용모델 개발, 관련제도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 3억원)

- 해외 ENG 수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발주청 인사 초청, 현지 수주교섭·조사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

④ 우리나라 인력·자재 활용 확대

- 유관기관(해건협, 산업인력공단 등)과 공동으로 '해외건설 채용박람회'를 개최(반기별 1회)하여 건설업체 인력난 및 국내 실업난 해소

- 해건협이 '해외건설 인재정보'에 구인·구직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회원)에 취업 뉴스레터 제공(주1회)
- 구축된 **해외건설 인력 DB***(기술인협회)를 활용하여 해외건설 기업이 수행하는 공사국가·내용에 맞는 **전문인력**을 매칭하도록 지원
 - * 개인별로 참여한 해외건설 공사개요 및 수행공종 등 수록
- 해외건설현장에서 국산기자재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 * 현재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 활용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제도 시행 중

4. 진출시장·공종 다변화

①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를 확대('12년 30억원→'13년 35억원)하는 동시에 자금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혜 범위 확대**
 - *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수주교섭 활동비 등을 지원
 - * 대기업은 단독 신청시에는 미지원, 지원건수 대비 10.1%의 수주성공률
-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을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 추진
 - * 최근 3년('10~'12)간 평균 신청금액은 8천만원 이상(537건, 444억원)이지만, 지원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만원 미만(248건, 91억원)에 불과

② 수주지원단 파견 등 외교력 집중

-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신시장을 선정,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선점을 위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 * 중점협력국 지정현황 : (아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동) 사우디, UAE, 쿠웨이트, (중남미) 페루, 콜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남수단, 나이지리아, (유럽) 터키
- 연간 수주지원 활동 계획 수립시 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지역에 일정 비율(30% 이상, 단계적 확대)을 우선 배정
- 신시장 특성을 감안, 특정 프로젝트 수주지원 외에 상대국과의 개발협력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차원의 지원 활동도 강화
 - * (아프리카) 남수단 신수도 건설 MOU체결, (중남미) 콜롬비아·베네주엘라 주택 건설사업, 페루 신공항 사업 등 민관합동 진출 추진 등
 - * (제3국 공동진출) 한-터키간 협력을 통한 CIS 공동진출 등
- 주요 발주처 초청*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 유망국가의 주한 주재공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주저변 확대
 - *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가칭) 개최 : 20개 발주처, 국제 금융기관 인사 등 약 30명 초청('13.11) →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1:1 면담
 - ** 국토부-공관 간담회, 공관원 초청 강연·현장시찰, 우리기업-공관 간담회 등

③ 강점분야 진출 활성화

- 우리업체가 강점을 가진 수자원·도시개발 등의 분야를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
 -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12.10), 중장기 도시개발 진출전략 수립 추진('13)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관리·신도시 개발 등 전문분야 교육 과정 개설
-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15) 지원 및 통합물관리 경험 수출 활성화 추진

5. 수주규모에 맞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① 해외건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범정부적으로 해외건설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 *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 등 고위급회의체 활용강화 등

- 국토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진흥위원회**(해촉법)를 장관주재 차관급 회의로 **격상 검토**(현재 차관주재 국장급)

- * 임기초 해외건설진흥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공공기관 해외 진출계획 심의 등을 통해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선도

- * 단,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기존 차관 주재 회의체는 **실무위원회**로 유지하여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세부사항 의사결정은 실무위원회 전결로 처리

- * 당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외건설심의회위원회로 설치(차관주재 국장급, '11.8)

- 재외공관(국토부 파견관)·해건협 지부·공공기관 지소 등을 **권역별로 네트워크화** 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한 현지 지원 강화

- * 국토부 산하의 해외건설 관련 해외조직을 우선 활용하고, 관련부처 해외조직도 단계적으로 네트워크에 편입하는 방안 검토

- 권역별 대표 재외공관 주관으로, 매월 권역별 해외개발 관련 **소식지를 발간***하고 상호 **정보공유** 및 수주지원활동 공동 추진

- * 수주정보, 정부·발주처 인사 면담정보 등 직접적인 해외개발 정보 및 주재국들의 정치·치안·경제 등 사업추진시 참고가 되는 일반사항 수록

② 체계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 체계적 해외건설 정책 수립을 위해 **Think-Tank** 구축 필요
 - * 수주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이 없고, 주요 정보도 BMI · Grobal Insight 등 일부 정보지, 외교전문 등에 의존
 - 시장정보, 주요 경쟁국 정책동향 등을 수집 · 분석하고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설립 추진
 - * 이노근 의원 발의('12.9) 해축법 개정안(해외건설경제연구소 설립) 수정수용 (국토위 통과, '13.2)
 - 해건협의 **국제 민간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 연구기관, 해외건설 지원단체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정보수집·시사점 분석 추진
- 발생한 이슈에 대해 **임기응변적으로** 추진해오던 지원 활동에서 탈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수주지원체계** 구축
 - * 현재 지원활동은 여기치 못한 발주처 방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대응역량이 집중되어 중장기적 관점의 수주지원 활동이 다소 미흡한 상황
 - **지역별 시장전망, 입찰/발주 프로젝트, 대사관 및 공 · 민간기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전략적인 수주지원 연간 활동계획 수립('13.2)**
 - * 중동 · 아시아 · 북아프리카 등 주력시장과 아프리카 ·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구분, 활동계획 차별화(고위급 면담, 현지 로드쇼, 발주처 초청 등 활용)
 - **수주지원 활동이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MOU체결, 협력행사 개최, 수주지원단 추가파견 등 후속조치 적극 시행**
 - 한정된 수주지원역량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지정('12.2월)한 **중점 협력국을 상황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하여 효율성 제고**
 - * 시장개척자금, GIF 투자, 수주지원단 파견, 발주처 초청 등 집중 지원
- **출장정보**(국가별 주요인사&프로젝트정보), 외교전문 등을 **DB화**하여 차기출장 · F/S사업 등에 체계적 활용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2. 중소기업 수주지원 센터
3. 해외 네트워크 운영
4.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5. 해외도시개발 지원 센터
6. 해외인프라 건설 수출지원
7. 글로벌인프라펀드
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사업개요

- (지원목적)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험 축적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비용 지원
- (지원내용) 타당성 조사,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발주처 인사 초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사업 건당 **2억원** 이내

* 지원비율 : (대기업) 미지원, (중견기업) 50% 이내, (중소기업) 80% 이내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3,010	3,810	5,000

□ '13년 추진계획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점협력국 등 전략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13년도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 시행계획 공고(1.30) → 신청서 접수(2.1~22) → 평가 및 선정(3.1~22) → 협약 체결(3.25~)

- 중소기업 및 **15개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 배정

- '14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예산 요구

- 사업별 지원규모 **현실화**(평균 4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를 위해 시장개척자금 예산 증액 협의

□ 사업개요

- 중소기업·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주경쟁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중소기업수주 지원센터	526	670	770

□ '13년 추진계획

- **(교육사업)**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외건설 실무자 육성을 위해 실무·
Case study 위주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업계 전문가 강사 섭외로 **정례교육**(계약·클레임, 개발/금융관리 등)
및 **실습 중심 교육과정**(공정관리 기초과정 등) 확대 실시
- **(진출상담)** 계약·클레임·법률, 보증·금융, 공종별 기술자문, 프
로젝트 관리기법 등 **전문분야 상담** 및 국가·프로젝트별 진출
관련 **일반상담 실시**(On/Off Line 병행)
 - **분야별 자문위원 50인**(상근 1인 포함)을 위촉하여 자문범위 확대
및 공종·분야별 협의회 운영, 지방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 **(정보망 구축)**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정보 인프라 기반을 구축
하여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 **(홍보사업)**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 사업개요

- (목적) 해외건설 분야에 특화된 현지지부를 설치하여, 주요 거점 지역의 프로젝트에 관한 고급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수주활동을 직접 지원
- (현황) '09.5월 카자흐스탄*에 최초 설치(해건협 자체 예산)한 이래, 정부 지원으로 '10년 4개국, '12년 2개국 등 총 7개국**에 설치·운영

* 카자흐스탄은 '12년부터 정부예산 지원

**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페루, UAE, 리비아, 카자흐스탄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해외 네트워크 운영	2,000	2,100	2,700

□ '13년 추진계획

- 해당국 및 주변국의 프로젝트 정보 수집·제공, 중소기업체들의지사 역할 대행, 수주지원단 현장지원 등 고유업무 적극 추진
- 건설공제조합과의 공동근무*를 통해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근무 확대 추진

* UAE 지부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가 1인 파견('13.4월~)

- 해외건설 분야에서 재외공관·공공기관 지소 등과 연계 강화
- 현지지부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네트워크 신규구축을 위해 대상국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기업수요가 있고 시장전망이 양호한 국가 검토(베트남, 중국, 터키 등)

□ 사업개요

- **업계 및 재외 공관의 수요를 토대로 주요 프로젝트 발주국가, 잠재적 해외건설 수요국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전방위적 해외건설 지원활동 전개**

* 고위급 면담, 협력 MOU 체결, 해외건설 홍보를 위한 로드쇼 개최 등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414	540	650

□ '13년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초청 계획

○ (1/4분기)

- 카타르·쿠웨이트(1월) 수주지원단 파견
- 중국 주택도농부장관(1월),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 위원장(2월)

○ (2/4분기)

- 한-터키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협력 포럼 개최(6월, 이스탄불)
- 태국(5월), 칠레·페루(5월), 카자흐·투르크(6월) 수주지원단 파견
- 브루나이 개발부장관, 미얀마 교통부장관(4월), 사우디 민간항공청장 및 카타르 도시계획부장관(6월)

○ (3/4분기)

-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7월, 장소미정)
- 중동(6월, 9월), 아프리카(10월) 수주지원단 파견
- 파키스탄·방글라데시 현지 로드쇼 개최(9월)

○ (4/4분기)

- 글로벌 인프라 협력포럼 개최(11월)
- 중남미(11월), 오만·리비아(12월) 수주지원단 파견
- 미얀마 건설부장관 초청(12월)

□ 사업개요

- (목적) 우리나라가 개발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한 신도시의 해외 수출을 위해 사업발굴, 정보관리, 민·관협력 등 기반 강화 지원
- (사업기간) 2013년~계속
- (추진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12.10.30)
- (사업내용) 해외 도시개발 정보 제공, 사업 발굴, 사업모델 개발 등
-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3, 시행령 제19조의2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	200	200

□ '13년 추진계획

- 해외도시개발 종합정보망 구축 및 웹진 발행을 통한 정보 제공
 - 해외 공관, 현지 진출 기업, 해군협 등과 연계하여 도시개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역전문가 DB구축
- 전략국가 선정, 사업 모델 개발 및 해외 유관기관(WB, MDB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진출 기반 조성
- 발주처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및 해외 공무원·전문가 초청 연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기회 모색

□ 사업개요

- (목적) 신도시 개발, 물 산업, 교통 시스템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지원
- (사업기간) 2013년~계속
- (추진방법) 국토부 직접 수행
- (사업내용)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해외인프라건설 수출지원	-	3,540	4,190

□ '13년 추진계획

- 신도시, 물관리 등 중점 인프라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사업 발주 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 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확대
 - 마스터플랜 수립 후 차관, 유·무상 원조 등 범정부적 지원역량 동원을 통하여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수출 추진
- 개도국 고위공무원 대상 인프라 초청연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진출 대상국 정부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

□ 사업개요

-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4천억원 조성('10.7) 및 타당성조사 지원(100억원)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글로벌인프라펀드	6,000	12,000	15,000

□ '13년 추진계획

- 해촉법 개정('13)
 - 해외개발사업투자펀드 설립근거 등 규정 신설
- 특정산업 펀드 조성
 - Water펀드 및 Air펀드 조성 추진('13)
- 정책금융기관 정보제공
 - '12년도 타당성조사 사업(5건) 최종결과 보고회 개최('13.4)
- “GIF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변경('13. 2)
-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추진('13.2, '13.6 사업모집)
- 중동국부펀드와 투자협력
 - 협의체 구성('13.2), 협의체 회의('13.6, '13.10)
- MDB 교류협력 추진
 - EBRD MOU 초안('13.상)마련 및 MOU 체결('13.하)
 - MDB 민간협력 포럼 개최('13.11)
 - MDB 수주지원단 파견 추진('13.9)

□ 사업개요

-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층 미취업자 및 국내 잉여 건설인력을 해외 건설인력으로 양성하여 실업해소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

※ 해외건설 취업과정·재직자 과정은 고용부 예산(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

사업명	'12예산	'13예산	향후 투자계획
			'14예산(계획)
글로벌청년리더양성	2,616	4,932	5,900

□ '13년 추진계획

- **(OJT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가 신규인력을 채용해 해외현장 파견 시 1년간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규모 확대

* ('12년) 217명 → ('13년) 400명

- **(취업과정 확대)** 대졸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단기 취업과정을 규모를 확대 시행* 및 전문분야 비중 확대**

* ('12년) 4개 교육기관, 2,270명 → ('13년) 5개 교육기관, 2,830명

** 물관리플랜트(70명), 신도시개발플랜트(60명) 과정 신설

- **(재직자 과정)** 건설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전문가 과정을 '12년과 동일 규모로 시행

* ('09~'11년) 2개 대학원, 120명 → ('12년) 3개 대학(원), 320명

- **(실무학기제 도입)** 대학(원)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직무 교육으로 대체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 실무학기제 도입 추진

* 실무학기제 : 직무교육(3월) + 해외인턴(6월 이상)